

# 「天元紀大論」 중 上下周紀에 대한 石谷 李圭峻의 校訂에 관한 考察\*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腎系內科學教室<sup>1</sup>

황원덕<sup>1</sup> \*\*

## The study on Lee-Gyujun(李圭峻)'s corrections on the rule of circulation of heaven-earth(上下周紀) in the 「Cheonwon-gidaeron(天元紀大論)」

Hwang Won-deok<sup>1</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In the chapter 「Cheonwon-gidaeron(天元紀大論)」 of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Lee-Gyujun(李圭峻) corrected “heaven has the rule of six and earth has the rule of five[天六地五]” to “heaven has the rule of five and earth has the rule of six[天五地六]”, and “sovereign fire is bright[君火以明]” to “sovereign fire is summoning[君火以召]”, which changes the meaning of the rule of circulation of the heaven and earth.

Considering the context and many scholars' opinions, it was suggested that “sovereign fire naming[君火以名]” which was noted from Tang dynasty to Jin & Wen dynasty was corrected to “sovereign fire is bright[君火以明]” over Ming dynasty. In the corrections of Wangbing(王冰)'s Plain Questions, the sentence is written as “sovereign fire naming[君火以名]”. The two characters, ‘明’ and ‘名’ are hardly similar in both shape and meaning, that it is only plausible to assume that it was mistaken for ‘召’.

Consequently, we corrected “sovereign fire is bright[君火以明]” to “sovereign fire is summoning[君火以召]”. And “sovereign fire is summoning, ministerial fire is locating[君火以召, 相火以位]”, it raise “the rule of five and six is combined together[五六相合]”. “The rule of five and six is combined together” means ‘heaven's number of five’ coincide “earth's number of six”, and it says former times before dividing up and down.

**Key Words** : sovereign fire(君火), Lee-Gyujun(李圭峻), sovereign fire naming(君火以名), sovereign fire is bright(君火以明), sovereign fire is summoning(君火以召), ministerial fire is locating, heaven has the rule of five and earth has the rule of six(天五地六)

\* 본 논문은 2009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09AA121)

\*\* 교신저자 : 황원덕.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 I. 序論

『黃帝內經素問』의 校訂은 唐·王冰으로부터 비롯된다. 王冰은 『素問』 舊本을 광범하게 수집해서, 『素問』 篇制를 改編하고, 所藏 舊本을 참고하여, 亡佚된 運氣關係의 第七卷 全篇을 補入함과 동시에 註釋을 加하였다.<sup>1)</sup> 宋代에 이르러 王命에 따라 林億, 高保衡, 孫奇 등이 王冰本을 校正하였고, 孫兆가 다시 正誤하여 이것이 重刊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바, 이를 “新校正”이라 한다.<sup>2)</sup> 그러나 이 影印本에서도 수많은 誤字가 발견되었으며, 馬蒔, 張志聰 合註의 影印本에서도 수십 개의 誤字와 錯簡이 있었고, 楊維傑이 편찬한 『黃帝內經譯解』(1990)에 수록된 원문 역시 杜撰의 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홍원식이 위 등의 『黃帝內經』 관련 서적을 交合한 끝에 『精校黃帝內經』(1985)을 편찬하여 『內經』 연구의 초석이 되어 오고 있다.

구한말 유학자이자 의가였던 石谷 李圭峻(1855~1923)은 1904년 『黃帝內經』에 대한 본격 연구 서적인 『素問大要』를 編著하여 자신의 의학 사상을 담아내었는데 그 「題誌」중에서 “王冰이 素問을 改補하고 注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宋博士 高保衡 등이 哀集하여 校正하였지만, 이 모두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 근본을 덮어버렸다... 『素問』의 大要를 가려 뽑고, 그릇되고 상치되는 내용을 바로 잡았다”라고<sup>3)</sup> 하여 편찬 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는 『素問』을 四卷으로 나누고, 총 22부분을 校訂하여 各卷 末尾에 今正과 舊라고 구분, 표기하여 舊本의 내용과 校訂正 내용을 밝혀 놓았다.

최근 李圭峻의 저술 및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그의 대표저작인 『素

問大要』에 대한 논문은 金중한의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sup>4)</sup>,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sup>5)</sup>, 金창건의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sup>6)</sup> 등 몇 편이 있다. 본 논문은 『素問大要』중에 기술된 李圭峻의 교정 및 그의 의학 사상에 대한 본격 연구 논문으로 『精校黃帝內經』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에 대한 논술과 『素問大要』에 기재되어 있는 校訂 내용을 비교 고찰하여 石谷 李圭峻의 校正 방식 및 함축된 의학사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본 논문 중의 『黃帝內經』 原文은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를 底本으로 하고 있으며, 石谷 李圭峻의 『素問大要』는 李圭峻, 『素問大要』, 서울, 대성의학사, 1999년 初版本을 底本으로 한다.

## II. 本論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하는 『黃帝內經』 원문은 『素問』 「天元紀大論」 중의 “帝曰, 上下周紀, 其有數乎? 鬼臾區曰,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 周天氣者, 六菴爲一備, 終地紀者, 五歲爲一周. 君火以明, 相火以位, 五六相合, 而七百二十氣爲一紀, 凡三十歲, 千四百四十氣, 凡六十歲, 而爲一周, 不及太過, 斯皆見矣.”<sup>7)</sup> 李圭峻은 위의 문장을 校訂하여 “帝曰, 上下周紀, 其有數乎? 鬼臾區曰, 天以五爲制, 地以六爲節. 周天氣者五歲爲一備, 終地紀者 六菴爲一周. 君火以召, 相火以位, 五六相合, 而七百二十氣爲一紀, 凡三十歲千四百四十氣, 凡六十歲而爲一周, 不及太過斯皆見矣.”라고 기술하고 있다. 『素問大要』 卷之三의 末尾에는 “今正 天以五爲制, 舊 天以六爲節. 今正 地以六爲節, 舊 地以五爲制. 今正 五歲, 舊 六氣. 今正 六氣, 舊 五歲”라고 하여 그 校訂 내용을 분명

E-mail : wdhwang@deu.ac.kr Tel : 051-850-8625  
접수일(2009년 10월 25일), 수정일(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7.  
2) 上揭書. p.49.  
3) 李圭峻編著, 素問大要, 서울, 大星醫學社, 1999. pp.2-3.  
“唐太僕王冰改補而註, 次之宋博士高保衡等哀集而校正之, 猶未能辨其僞而覆其本... 余嘗觀素問, 窃有慨然乎心者, 間有以是書來問者, 乃爲之, 采其大要, 正其訛舛.”

4) 金중한.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5. pp.18-46.  
5) 金중한.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57-63.  
6) 金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2007.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4

『素問』「天元紀大論」

『素問大要』「天元紀大論」

“帝曰，上下周紀，其有數乎？鬼臾區曰，天以六爲節，地以五爲制。周天氣者，六朞爲一備，終地紀者，五制，地以六爲節。周天氣者，五歲爲一備，終地紀者，六歲爲一周。君火以明，相火以位，五六相合，而七百二十朞爲一紀，凡三十歲，千四百四十氣，凡六十歲，而爲一周，不及太過，斯皆見矣。”

“帝曰，上下周紀，其有數乎？鬼臾區曰，天以五爲節，地以六爲制。周天氣者，五歲爲一備，終地紀者，六歲爲一周。君火以明，相火以位，五六相合，而七百二十氣爲一紀，凡三十歲，千四百四十氣，凡六十歲，而爲一周，不及太過，斯皆見矣。”

\* 밑줄은 서로 바뀐 부분을 가리킴

표 1. 『素問』「天元紀大論」과 『素問大要』「天元紀大論」의 문장 비교

히 하고 있지만 “君火以明”의 경우 본문에는 “君火以召”라고 校正하였으나 卷之三 末尾에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sup>8)</sup>.

이에 논자는 위 문장의 전후 내용과 諸家の 견해를 참고하여 李圭峻이 ‘天六地五’를 ‘天五地六’으로 교정한 내용과 ‘君火以明’을 ‘君火以召’로 校正한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天以六爲節，地以五爲制。周天氣者，六朞爲一備，終地紀者，五歲爲一周。

『素問注釋匯粹』는 “天數는 五이며, 五陰五陽이므로 十干이 된다. 地數는 六이며, 六陰六陽이므로 十二支가 된다. 그러나 天干의 五는 반드시 地의 六을 받아서 節로 삼고, 地支의 六은 반드시 天干의 五를 받아서 制로 삼은 후에 六甲이 이루어져서 歲氣가 갖추어진다.”고 註하였다.<sup>9)</sup> 즉 諸家들은 본문의 앞 문단인 “天之氣，動而不息，故五歲而右還，應地之氣，靜而守位，故六朞而環會”에 근거하여 天의 數는 五, 地의 數는 六인데, 원문에 天六地五라고 한 것은 天氣는 地氣를 얻고 地氣는 天氣를 얻은 후의 상태를 설명한 문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天氣가 地氣를

得하고 地氣가 天氣를 得한 후의 상태는 上下相召한 후 즉 上下相臨한 상태를 말한다. 明抄本에는 “君火以明，相火以位”八字가 없는데, 이는 앞문자인 天六地五와 뒤 문구인 五六相合과는 문맥상 연관성이 없어 刪削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0)</sup>

한편 李圭峻은 “帝曰，上下周紀，其有數乎？鬼臾區曰，天以五爲制，地以六爲節。周天氣者五歲爲一備，終地紀者 六朞爲一周.”라고 교정하였으며, 문장의 뒷부분인 “君火以明，相火以位.”를 “君火以召，相火以位”로 校正하였다. 天數를 五, 地數를 六으로 교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上下周紀를 설명한 문장의 앞 문단인 “天之氣，動而不息，故五歲而右還，應地之氣，靜而守位，故六朞而環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天之氣，動而不息，故五歲而右還，應地之氣，靜而守位，故六朞而環會”라고 한 다음 문장에 “動靜相召，上下相臨，陰陽相錯，而變由生也”라고<sup>11)</sup> 하였으므로, 動적인 天氣와 靜적인 地氣가 相召한 이후는 上에 있는 天數인 五가 下에 있는 地氣에 臨하고 下에 있는 地數인 六은 上에 있는 天에 臨하게 되면 陰陽이 相錯하여 변화가 비롯된다. 이렇게 動靜相召한 이후에는 天은 地數인 六을 득하고, 地는 天數인 五를 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石谷 李圭峻은 天數六, 地數五인 원문을 天數를 五, 地數를 六으로 校訂하여 “天以五爲制，地以六爲節。周天氣

8) 李圭峻編著, 素問大要, 서울, 大星醫學社, 1999. p.195.  
9)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78. “天數五, 以五陰五陽故爲十干. 地數六, 而六陰六陽故爲十二支. 然天干之五, 必得地支之六以爲節. 地支之六, 必得天干之五以爲制, 而後六甲成, 歲氣備.”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p.235.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234. “動靜相召,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也”

者五歲爲一備，終地紀者 六基爲一周。”라고 한 것은, 이 문장을 上下相召 이전의 내용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天數를 五, 地數를 六이라고 한 것과 天數를 六, 地數를 五라고 한 것의 차이는 上下相召의 前後에 의한다. 上下相召以前이면 天氣는 “動而不息, 故五歲而右還,”하고, 地氣는 “應地之氣, 靜而守位, 故六基而環會”하므로, 上下相召 이전의 天數는 五, 地數는 六이 된다. 그리고 天地相召以後는 上에 있는 天氣가 下에 臨하고, 下에 있는 地氣가 上에 臨하므로, 天은 六數를 얻게 되고, 地는 五數를 얻게 된다. 따라서 上下相召以後의 天數는 六, 地數는 五가 된다.

이상을 참고로 하여, 上下周紀 중 天地數五六을 설명한 다음 문구가 현행본대로 “君火以明, 相火以位”이라고 한다면 明抄本에서 이 문장을 刪削한 것처럼, 이 문장은 내용상 上下相召 및 周紀와는 관련이 없는 衍文에 해당된다. 따라서 天地數五六을 설명한 문장은 “君火以明, 相火以位”의 유무에 관계없이 相召以後를 설명한 문장으로 보아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 周天氣者, 六基爲一備, 終地紀者, 五歲爲一周”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天地數五六을 설명한 다음 문구를 “君火以召, 相火以位”라고 교정한다면, 이 문장은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上下相召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으로 君火와 相火가 相召하여 天數인 五와 地數인 六이 相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君火以召, 相火以位”의 앞 문장은 君火와 相火의 相召以前 상태가 되므로 天數를 五, 地數를 六으로 바꾸어 “帝曰, 上下周紀, 其有數乎? 鬼臾區曰, 天以五爲制, 地以六爲節. 周天氣者五歲爲一備, 終地紀者 六基爲一周.”로 校訂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君火以明, 相火以位

王冰은 『素問』 「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의 註에 “君火在相火之右, 但立名于君位, 不立歲氣, 故天之六氣不偶其氣, 以行君火之政, 守位而奉天之命, 而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稟命, 故云相火以位”라고 하여, 원문을 ‘君火以

名’으로 보고 註하였다.<sup>12)</sup> 그리고 「素問·至真要大論」의 “不可氣化”의 註에는 “君不主運, 新校正云, 按天元紀大論云, ‘君火以名, 相火以位’謂君火不主運也”라고 하여 他篇에서도 「天元紀大論」의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보았으며, 新校訂도 또한 원문을 “君火以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元代의 朱震亨은 『相火論』에서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於五行, 謂之君.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이라고<sup>13)</sup> 하였고, 李杲는 『脾胃論』에서 “心火不主令, 相火代之”이라고<sup>14)</sup> 하였다. 朱震亨과 李杲의 이와 같은 견해는 金元代 『內經』의 원문에는 “君火以名”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明代以後의 대표적인 주석가들인 馬蒔, 張介賓, 張志聰, 등은 『素問』 「天元紀大論」의 原文이 ‘君火以明’으로 기재되어 있는 刊本을 보고 注釋하였다. 특히 明代 張介賓은 『類經』에서 “天元紀大論」 원문에는 ‘君火以明’이라고 되어있으며, ‘君火以名’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明’字를 ‘名’字로 바꾸려고 하는가? 이는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로 해석하여 『內經』의 뜻을 크게 잃어 버렸다.”고<sup>15)</sup>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素問』 「天元紀大論」중 上下周紀를 설명한 내용 중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이 현행본에는 “君火以明, 相火以位”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唐代 王冰은 그의 註에서 原文을 “君火以名”이라고 하였고, 明代 張介賓은 그의 註에서 원문을 “君火以明”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石谷 李圭峻은 『素問大要』에 “君火以召, 相火以位”라고 교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주석은 하지않았다.

이 원문의 효시인 王冰의 所藏 舊本 運氣七篇은 당시 王冰이 古文과 補入加筆한 文句를 朱書와 黑

1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pp.424-425.

13) 朱震亨. 格致餘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34.

14) 李杲. 脾胃論.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5. p.32.

15)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624. “按新校正, 及諸家之注此者, 皆曰君火以名, 相火以位. 正以明君火不主運也. 其說殊謬. 夫天元紀大論原曰, 君火以明, 非曰君火以名, 奈何將明字改作名字, 牽強爲解, 大失經旨.”

書로서 구별하였는데, 宋代 林億 등이 王冰本을 新校正하면서 朱書를 없애버렸으므로, 현재 王冰의 원문을 고증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王冰本의 원문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적인 측면과 字形의 인 측면에서 위 세 의가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내용적인 측면

王冰과 張介賓은 원문에 대한 타당성을 주석을 하였으나, 李圭峻은 校正하고 주석은 하지 않았다. 전후 문단의 내용을 연관시켜 보면 앞 문단인 上下相召의 내용 중 天地數五六은 본 문단인 上下周紀의 天地數五六과 연관이 있고, 전 문단의 내용 중 ‘應地之氣, 靜而守位’의 ‘位’와 上下周紀 중 ‘相火以位’의 ‘位’는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앞 문단과 본 문단은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앞 문단과 본 문단의 내용을 연관시켜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하여 王冰과 張介賓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 문단의 내용은 上下相召를 설명한 부분인데, 이를 살펴보면, 天氣는 寒暑燥濕風火이고, 地氣는 木火土金水火라고 하였다. 그리고 天氣는 動而不息하여 五歲而右還하고, 地氣는 靜而守位하여 六暮而環會하는데, 天氣인 動과 地氣인 靜이 相召하면 上이 下에 臨하고 下가 上에 臨하게 되어 陰陽이 서로 섞여 변화가 이에 비롯된다고 하였다.<sup>16)</sup> 즉 動靜相召가 전제가 되어야 天地가 相合하여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動靜相召에 대해서는 「五運行大論」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天元紀大論」에서 鬼與區가 應地者靜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岐伯은 地氣도 動한다고 하였고, 天氣와 地形의 動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根本과 枝葉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sup>17)</sup> 즉 이 문장은 動靜이 上召하기 위해

서는 天地 모두에 動이 생겨야 하는데, 靜體인 地形에 動이 생기려면 根本에 해당되는 天氣의 動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sup>18)</sup> 같은 맥락으로 「五運行大論」의 다음 문단에서 “燥勝則地乾, 暑勝則地熱, 風勝則地動, 濕勝則地泥, 寒勝則地熱, 火勝則地固矣”라고<sup>19)</sup> 하여 天의 六氣가 動하여 地의 六氣에 영향이 나타남을 말하였다. 위 두 문단에서 天의 動에 의해 地의 動이 좌우됨을 말한 것이므로, 여기서 動靜相召의 주체는 天氣의 動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上下相召 중 “動靜相召,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也.”는, 天氣의 動에 의해 靜인 地形에 動이 생겨 動靜이 相召하면 上이 下에 臨하고 下가 上에 臨하여 陰陽이 서로 섞이면 변화가 이에 비롯됨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上下相召의 의의를 動靜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上下가 相合하기 위해서는 上下相召가 전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上下相合을 上下周紀를 설명한 문단 중에서 살펴보면, 五六相合은 天干과 地支의 相合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上下相合이다. 上下相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上下相召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五六相合의 앞 문장인 君火와 相火의 문구는 上下相召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相火以位’라고 한 것은 “靜而守位”인 地氣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動而不息인 天氣를 君火로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五六相合하기 위해서는 앞 문장은 君火와 相火의 相召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相召이 있으려면

五行麗地, 地者所以載生成之形類也, 虛者所以列應天之精氣也,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234. “應天之氣, 動而不息, 故五歲而右還, 應地之氣, 靜而守位, 故六暮而環會, 動靜相召,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也.”

17) 上揭書, p.237. “帝曰, 動靜何如? 岐伯曰, 上者右行, 下者左行... 帝曰余聞鬼與區曰, 應地者靜, 今夫子乃言, 下者左行... 岐伯曰, 天地動靜, 五行遷復, 雖鬼與區, 其上候而已, 猶不能備明.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 七曜緯虛,

18) 張介賓은 天精은 根本, 地形은 枝葉을 비유된다고 하였으며, 張志聰은 地精을 根本, 在泉之氣의 動을 枝葉에 비유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뿌리와 가지의 동을 비교해보면, 외부적인 영향이 있으면 뿌리에 비해 가지가 더욱 동적이지만,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서 볼 때는 根固枝榮이라 하듯이 뿌리의 활동이 가지에 더 잘 드러난다. 본 문장의 形精之動은 天靜과 地形을 根本과 枝葉에 비유한 것인데, 이는 외부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그 天과 地 자체를 動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문장이다. 動의 관점에서 뿌리가 動하면 가지에 영향이 잘 드러나지만 가지의 動은 뿌리에 영향을 덜 드러난다. 따라서 張介賓의 견해처럼 본문의 精을 根本에 形을 枝葉에 비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19) 上揭書, p.237.

君火와 相火가 모두 動을 해야 하므로,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形精之動”의 관점에서 “君相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枝葉인 地形은 相火에 비유되고, 根本인 天精은 君火에 비유된다.<sup>20)</sup> 마치 根本이 動하면 枝葉에는 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처럼, 君火와 相火의 관계는, 君火가 召하면 靜而守位인 相火는 이 영향을 받아 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렇게 君火와 相火에 모두 動이 나타나면 君相이 相召하여 五六相合하여 一周紀가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天地上下를 君火와 相火에 비유한 것은 君相간의 관계를 召로 표현하여 上下相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한 動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火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火는 動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君火와 下에 있는 相火의 관계를 火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君火는 動이고, 相火는 靜이다. 君과 相의 관계는 君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相이 君命을 받기 전에는 相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相火도 君火를 받기 전에는 자체에 火가 없다. 그런데 相火가 靜임에도 불구하고 火라고 한 것은, 相火는 君火를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根本과 枝葉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君火가 火의 주로서 相火를 召하면, 相火는 君火를 받아 火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相火란 相之火 즉 君火에 상대되는 별개의 火란 뜻이 아니고, 君火를 도우는 相이라는 뜻이다.

이상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을 전후 문단의 내용적인 관점에서 연관시켜 본 결과, 天地數五六를 설명한 다음 문장을 “君火以名”이나 “君火以明”으로 보게 되면, “君火以明(名), 相火以位”는 앞 문장인 天地數五六과 뒷 문장인 五六相合과는 내용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衍文에 불과하다.<sup>21)</sup> 君相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을 “君火以召, 相火以位”로 교정한다면 앞 문장인 天地數五六과

뒷 문장인 五六相合과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一周一紀가 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王冰과 張介賓의 견해를 이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王冰의 “君火以名, 相火以位”에 대한 견해

王冰은 원문을 “君火以名, 相火以位”라고 보고 注釋하였는데, “君火는 相火의 右에 있으면서 단지 君位에서 이름만을 세우고 不立歲氣하기 때문에 天의 六氣는 君火와 짝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君火의 政事를 행한다... 이름으로서 奉天하기 때문에 君火以名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sup>22)</sup>, 또한 「至眞要大論」의 “不司氣化”의 註에 “‘君火以名’이므로 君火는 五運을 主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3)</sup> 이 두 문구의 註를 종합하면, 五運은 火가 一이고 六氣는 火가 二인데, 少陰(君火)은 不司氣化하므로 五運을 主할 수 없어서 天의 六氣와는 짝하지 않고 단지 名으로만 君火之政을 행하고 실제적인 火令은 相火가 대신 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張介賓은 王冰의 이 注釋에 대하여 “모두들 (원문을) ‘君火以名’이라 하여 ‘明’字를 장차 없애고자 하면 先聖들의 지극한 요지를 거의 잃어버릴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sup>24)</sup> 하였다.

王冰의 “君火, 不立歲氣”라고 한 것에 대하여, 「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 上見少陰(君火)”이라고<sup>25)</sup> 한 것은, 君火의 立歲氣함과 君火가 六氣를 天地로 나누어 主宰함을 말한 것이다.<sup>26)</sup> 다음으로 王冰의 註에서 君火가 六氣와 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至眞要大論」에 “少陰(君火)爲熱化”라고<sup>27)</sup> 한 것은, 君火가 六氣와 짝하고 있음을 말한

2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p.204-205. “君火在相火之右, 但立名于君位, 不立歲氣, 故天之六氣不偶其氣, 以行君火之政, 守位而奉天之命, 而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稟命, 故云相火以位.”

23)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563. “君不主運, 新校正云, 按天元紀大論云, ‘君火以名, 相火以位’謂君火不主運也”

24) 張介賓, 類經(下), 前揭書, p.536. “皆謂君火以名, 竟將明字減去, 大失先聖至要之旨.”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234.

26) 張介賓, 類經(下), 上揭書, p.536. “子午之歲, 上見少陰, 則六氣分主天地, 各有所司, 何謂不立歲氣.”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p.237. “形精之動猶根本之與枝葉也.”

21)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273. “此下舊有‘君火以明, 相火以位’二句, 崑以其與上下文不相流貫, 改次于六微旨大論, ‘君火治之’之下”

것이다. 그리고 「至眞要大論」의 ‘不司氣化’를 五運을 主할 수 없어서 天의 六氣와는 惝하지 않아서 단지 名으로만 君火之政을 行한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張介賓이 비판한 것처럼 少陰인 君火는 특정한 氣化를 다스리지 않는다 즉 모든 氣化에 關여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sup>28)</sup> 또한 張介賓은 君은 大王인데 어찌 位 자리의 名 이름에 의지하겠는가?”라고<sup>29)</sup> 한 것처럼 ‘不司氣化’를 五運을 主할 수 없어서 天의 六氣와는 惝하지 않아서 단지 名으로만 君火之政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 王冰의 주석을 고찰한 결과, 「至眞要大論」의 “不司氣化”를 “君火以明”의 근거로 제시하여 「天元紀大論」의 원문을 “君火以明, 相火以位”라고 한 王冰의 견해는 『內經』의 運氣이론과는 不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2) 張介賓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대한 견해

張介賓은 원문을 “君火以明, 相火以位”라고 보고 注釋하였는데, 君火와 相火의 개념에 대하여 『周易』의 卦를 인용하였다. 즉 君은 上에 있고, 相은 下에 있는 것이다. 陽이 上에 있는 것이 즉 君火이고, 陽이 下에 있는 것은 즉 相火이다. 上은 離에 응하는데, 離는 二陽在外하므로 君火以明하고, 下는 坎에 응하는데, 坎은 一陽在內하므로 相火以位한다고 하였다.<sup>30)</sup> 그리고 張介賓은 “君火以明”에 대하여 『內經』 및 『周易』에서 心과 日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인용된 내용은 모두 ‘明’字에 한정하였으며<sup>31)</sup>, “相火以位”에 대한 근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坎의 一陽을 제시하여, 陽在 下를 相火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張介賓은 君火는 “日之明”에 해당되고, 相火는 “原泉之溫”에 해당된다고<sup>32)</sup> 하였다.

다음으로 君火와 相火의 性情에 대해서 張介賓은, 上에 있는 君火는 마치 燄光 같이 明으로 밖으로 出하는 動的인 氣之火이고, 下에 있는 相火는 마치 火로의 炭속에 있는 燄불 같이 熱氣가 안으로 蓄積된 靜的인 質之火라고<sup>33)</sup> 하였으며, 이를 人에 적용하여 君火는 心에 속하여 神明이 出하고, 相火는 腎에 속하여 元陽이 蓄積되어 있다고<sup>34)</sup> 주석하였다.

이상 張介賓의 君火와 相火에 대한 견해를 우선 『周易』의 觀點에서 고찰해 보면, 離 전체인 二陽在外, 一陰在內은 外明內暗이며, 外明內暗은 光明과 火熱을 뜻한다.<sup>35)</sup> 그리고 坎인 二陰在外, 一陽在內은 外暗內明이며, 外暗內明이 水를 뜻한다.<sup>36)</sup> 여기서 坎에서 內明外暗은 水를 뜻하므로, 水를 다시 나누어 一陽(內明)을 火, 二陰(外暗)을 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離와 坎의 明暗을 陰陽으로 볼 수는 있지만 水火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離와 坎을 君火와 相火에 연관시키면, 離는 君火, 坎은 相火에 해당된다. 따라서 火의 性情은 外明內暗이고 이것이 곧 君火이며, 水의 性情은 內明外暗이고, 이

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皆取諸此也.”

32) 上揭書, p.537. “君火居上, 爲日之明, …相火居下, 爲原泉之溫”

33) 上揭書 p.537. “然以凡火觀之, 則其氣質上下, 亦自有君相明位之辨. 皆明者光也, 火之氣也, 位者形也, 火之質也. 如一寸之燈, 光被滿室, 此氣之爲然也, 盈爐之炭, 有熱無燄, 此質之爲然也. 夫燄之與炭皆火也, 然燄明而質暗, 燄虛而質實. 燄動而質靜, 燄上而質下, 以此証之, 則其氣之與質, 固自有上下之分, 亦豈非君相之辨乎?”

21) 上前書 p.537. “君火居上, 爲日之明, 以昭天道, 故於人也屬心, 而神明出焉. 相火居下, 爲原泉之溫, 以生養萬物, 故於人也屬腎, 而元陽蓄焉”

35) 周易 附診解(四), 서울, 驪江出版社, 1990, p.571. “節齋蔡氏曰, 內暗外明者, 火與日也, 離內陰外陽, 故爲火爲日.”, p.542. “離也者明也, 萬物皆相見, 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皆取諸此也.”

36) 上揭書, p.568. “閻氏彥升曰, 坎一陽在內而明, 二陰在外而暗, 內明外暗, 故爲水, 進齋徐氏曰, 內明外暗者, 水與月也, 坎內陽外陰, 故爲水爲月.”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p.293.

28) 張介賓, 類經(下), 前揭書, p.624. “惟君火獨不司五運之氣化, 正以君火者, 太陽之火也. 爲陽氣之本, 爲萬化之原, 無氣不司, 故不司氣化.”

29) 上揭書, p.536. “君爲大王, 又豈寄空名於上者乎?”

30) 上揭書, p.536. “君者上也, 相者下也. 陽在上者即君火也, 陽在下者即相火. 上者應離, 陽在外, 故君火以明. 下者應坎, 陽在內也, 故相火以位, 火一也, 而上下幽顯, 其象不同.”

31) 上揭書, p.536. “氣交變大論曰,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紀. 生氣通天論曰, 陽氣者若天與日, 失其所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日光明, 此皆君火以明之義也. 又周易說卦傳曰, 離也者

것이 곧 相火이다. 이에 근거하면 君火는 陽在外, 相火는 陽在內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坎의 一陽에 근거하여 相火에 火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相火는 二陰在外, 一陽在內 전체를 뜻하고, 이것은 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上下의 관점에서 보면 君火와 相火를 離와 坎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坎 전체가 水인 陰을 뜻하므로<sup>37)</sup> 坎의 一陽에 근거하여 相火를 陽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근거하면 上에 있는 君火는 離火이므로 陽에 해당되고, 下에 있는 相火는 坎水이므로 陰에 해당된다. 따라서 君火와 相火를 上下의 관점에서 보면, 陽在上即君火, 陰在下即相火라고 하면 可하지만 張介賓의 견해인 陽在上即君火, 陽在下即相火라고 하면 不可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張介賓은 君火에 대해서 『內經』 및 『周易』 중 君火를 明으로 설명한 문장을 인용하였는데, 『內經』의 「生氣通天論」에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이라고<sup>38)</sup> 하였으며, 「陰陽應象大論」에 “南方生熱, 熱生火”이라고 하였고, 『周易』 「說卦傳」에서는 “離爲火爲日...”이라고 하였다. 이상 인용된 『內經』과 『周易』에서는 明 이외에 火熱의 의미로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보면 태양의 광명에 의해 낮밤이 생겨나고, 태양의 熱氣에 의해 사계절의 변화인 溫熱涼寒이 나타나며, 이에 만물이 生長收藏한다. 따라서 태양은 光明과 火熱을 모두 포괄하는 火로서 만물을 生育케 하므로, 君火는 만물을 생육케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張介賓의 견해인 君火를 “明”의 의미로만 국한하여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相火에 대해서는 坎의 一陽을 ‘原泉之溫’과 ‘盈爐之炭’에 비유하여 相火를 質之火라고 하였는데, 자연계에는 다양한 水가 존재한다. 水의 본성은 모두 같지만 지형에 따라 水의 현상은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火氣가 있는 지형이면 水에 熱氣가

있으며, 金이 많은 지형이면 燥한 기운이 있을 것이고, 寒한 지형에는 水가 얼거나 찰 것이다. 이 모두 水의 본성은 같지만 지형의 六氣에 따라 水의 氣象이 다를 수 있다. 즉 原泉之溫나 盈爐之炭은 그 자체에 火가 있는 것이 아니라 火氣를 받아서 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즉 火氣가 물체에 작용하면 물체에 熱이 나타나므로, 火는 體에 해당되고, 물체에 熱이 나는 것은 用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原泉이나 爐炭 자체에 火가 없음에도 火를 잘 받아들이는 성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火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坎의 一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坎 자체는 水이므로, 泉이나 炭의 본성은 火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坎의 一陽에 근거하여 相火를 質之火라고 하였으나, 坎의 一陽은 內明을 뜻하므로, 張介賓의 견해인 相火는 質之火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君火와 相火를 心과 腎에 비유한 것을 고찰해 보면, 「靈蘭秘典論」에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고 하였고, 「陰陽應象大論」에 “南方生熱, 熱生火...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藏爲心...北方生寒, 寒生水...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臟爲腎.”이라고<sup>39)</sup> 하였다. 여기서 君火는 火와 熱에 해당되며, 相火는 寒과 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內經』 全篇에 腎에 생리적인 火가 있다고 논한 편은 없으며, 『素問』 「四氣調神大論」에 “冬三月...去寒就溫, ...必待日光”이라고 한 것은, 腎 자체는 寒하기 때문에 반드시 日光 즉 君火를 받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腎 자체에는 火가 없으며, 心火를 받아 就溫할 때 腎에 생기는 火가 相火인 것이다.

또한 張介賓은 “所以六氣之序, 君火在前, 相火在後. 前者肇萬物之生, 後者成萬物之實”이라고 하였다. 君火相火之序를 二十四節氣에 배속시키면, 君火之氣는 대략 春分에서 小滿까지이며, 相火는 小滿에서 大暑까지이다. 여기서 君火와 相火의 공통점은 똑같은 火인 태양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이고, 君火와 相火의 차이점은 春分을 지나 일조량이 점차 많아져 따뜻함이 드러나는 小滿까지가 君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23. “水爲陰, 火爲陽.”

38) 上揭書, p.16

39) 上揭書, p.24

火之節이고, 일조량이 점차 많아져서 夏至에 이르러 일조량이 극에 달한 시점을 지나 地의 복사열로 더위가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大暑까지가 相火之節인 것이다. 따라서 二十四節氣의 관점에서 보면, 君火와 相火는 별개의 다른 二火가 아니며, 溫暖한 君火가 暑熱한 相火로 되는 것이 마치 根本이 動하면 枝葉이 이 영향을 받아 더욱 심하게 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君火와 相火를 『周易』과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周易』에서 君火는 火에 해당되고, 相火는 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에서 君火는 火이며, 相火는 자체에 火가 없으며, 君火의 작용에 의해 火가 생김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을 전후 문장과 연관시켜 본 결과, 上下周紀란 天地數五六의 相召 즉 上下相召를 君과 相의 관계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動인 君火가 召하면 靜인 相火가 이에 응하여 動이 나타나서 五六相合하여 一周紀가 됨을 설명한 문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王冰의 “君火以名, 相火以位”와 張介賓의 “君火以明, 相火以位”를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 중 君火와 相火의 원문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上下相召의 관점에 파악하여 원문을 “君火以召, 相火以位”이라고 한 石谷 李先生의 校訂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字形적인 측면

王冰의 “君火以名, 相火以位.”와 張介賓의 “君火以明, 相火以位”, 그리고 石谷 李圭峻의 “君火以召, 相火以位”를 字形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張介賓은 본래 원문에 ‘明’字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王冰에서부터 元代까지 注釋하면서 ‘名’字로 改作하였다고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名字와 明字의 자형이나 뜻이 서로 너무 달라서 ‘明’字를 ‘名’字로 錯認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또한 王冰本을 校正한 宋代 新校正에서도 원문을 “君火以名”이라고 한 것과 金元代 朱震亨과 李杲도 君火의 개념을 “君火以名”에 근거한 점 등을 종합한다면, 王冰은 所藏

舊本의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보고 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 원문이 宋代代까지는 “君火以名” 그대로 전해지다가 明代(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로 넘어오면서 “君火以明”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문을 王冰이 所藏 舊本 運氣七篇에서 “君火以名”이라고 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1) 내용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앞 문단의 내용의 上下相召에 관한 내용이며, 본 문단은 上下相召로 인한 上下周紀를 설명한 부분이므로, 원문을 “君火以名”이나 “君火以明”이라고 한다면 앞뒤 문단은 내용상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문에서 天地의 관계를 君과 相으로 인용한 것은 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名字는 ‘夕’文과 ‘口’文의 합어어이고, 召는 ‘刀’文과 ‘口’文의 이 합쳐진 글자이므로, ‘名’字와 ‘召’字의 자형이 유사하다. 이 두 글자의 자형을 필기체로 비교하면, 이 두 글자는 아래의 ‘口’文은 동일하고 ‘夕’文과 ‘刀’文의 차이인데, ‘刀’文의 오른쪽 삐침의 선명도가 떨어지면 ‘夕’字의 방점으로 誤認할 수 있다. 王冰이 運氣七篇을 수집할 당시 자형들의 선명도를 감안할 때, 王冰은 ‘召’字 중 ‘刀’文을 ‘名’字 중 ‘夕’文으로 錯看하여, ‘召’字를 ‘名’字로 보아 “君火以名, 相火以位”로 주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上下周紀를 설명한 문단 중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대하여 내용적인 관점과 자형적인 관점에서 세 醫家の 견해를 고찰한 결과, “君火以明, 相火以位”를 “君火以召, 相火以位”로 校正한 石谷 李圭峻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설명한 原文이 “君火以名(明), 相火以位”이면 이 문장의 앞 부분인 天地六五數와 뒤 문장인 “五六相合”은 天의 五歲而右還이 下인 地에 臨하고, 地의 六基而還會는 上인 天에 臨한 것으로 보아 “天以六爲制, 地以五爲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五六相合’도 “天以六基爲備, 地以五歲爲周”라고<sup>40)</sup>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설명한 원문이 이상 고

40) 張介賓, 類經(下), 前揭書 p.537.

찰한 바와 같이 “君火以召, 相火以位”라고 한다면, 이 문구는 上下相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 문장은 문맥상 相召以前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上下가 相召以前 상태이면 天은 地의 六數를 得하지 않은 상태이고 地는 天의 五數를 得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君火以召, 相火以位”의 앞 문장인 天六와 地五는 天五 地六으로 校訂하여 “天以五爲制, 地以六爲節. 周天氣者五歲爲一備, 終地紀者 六朞爲一周.”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III. 總括

이상에서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 중 君火와 相火에 대한 王冰, 張介賓 및 李圭峻의 견해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王冰은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보고 君火는 虛名 뿐이고 相火가 天命을 대행한다는 說을 주장하였으며, 이 說은 金元代 李杲의 脾胃論과 朱震亨의 相火論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李杲는 이 說에 근거하여 勞倦傷에 脾胃氣가 衰하면 心火獨盛하는데, 心火는 陰火이기에 晝를 主할 수 없어서 相火가 대신 행하므로 心火가 獨盛해도 下焦胞絡之火인 相火가 盛하게 된다. 이런 병리적인 相火는 元氣穀氣之賊이라고 하여 甘寒之劑로 瀉其熱火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여 補中益氣湯類를 創方하였다. 그리고 朱震亨은 생리적인 相火를 靜的인 火로 보아 相火의 妄動을 경계하였으며, 일반적인 上熱은 대개 下에 있는 相火의 妄動으로 인한 眞陰不足으로 보아 大補陰丸을 創方하였다.

다음으로 張介賓은 원문을 ‘君火以明’이라 하고 君火는 動的인 無形의 火(日之明), 相火는 靜的인 실제적인 火(炭之火)라고 주장하여 靜的인 相火가 자주 動하게 되면 相火의 虧損과 동시에 眞陰도 不足된다고 하여 右歸飲을 創方하였다.

즉 제자들은 ‘應地氣者, 靜而守位’의 靜과 相火의 火에 근거하여, 相火를 靜的인 火로서 생명활동의 주체로 보았으며, 君火는 明이나 虛名으로 해석하여 실제적인 활동은 미약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李圭峻은 원문을 ‘君火以召’로 보았

데, 이는 動的인 君火가 召하면 靜的인 相火는 君火를 받아서 動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李圭峻은 君火를 動的인 火로서 생명활동의 주체로 보았으며, 相火는 君火를 받아서 활동하는 相, 즉 君火를 도우는 相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上에 있는 火가 下에 있는 水에 下降하여야 생명활동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上에 있는 君火가 水에 下降하지 못하면 火氣가 逆上하게 되어 上熱되고, 이렇게 되면 中間은 막히고, 下는 火氣를 받지 못해서 寒하게 된다고 보았다. 치료는 上에 있는 火는 하강하게 하여 清上이 되게 해야 하고, 中은 막힘없는 通中이 되게 해야 하며, 下는 火를 받아서 溫下가 되게 하는 清上通中溫下를 치료의 대법이라고 하였다.

이상 제가의 견해를 『內經』과 『周易』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天元紀大論」의 上下相召에서는 天은 動, 地는 靜이라고 하였으나, 「五運行大論」에서 地는 靜體이지만 動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地形의 動에 대해서는, 天氣와 地形의 動은 根本과 枝葉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根本과 枝葉은 不可離의 관계이므로, 地는 비록 靜이지만 天의 動에 의해 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上下周紀에서는 相火를 ‘靜而守位’인 地氣에 비유하여 “相火以位”라고 하였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君火를 動적인 天氣에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火가 없으면 靜하고, 火氣는 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上下周紀에서 君火와 相火라고 한 것은 天氣와 地氣의 動을 火의 관점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天地之動의 관점인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은 君火와 相火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즉 根本에 해당하는 君火가 動하면 이 영향을 받은 靜인 相火에도 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마치 朝廷에서 相들이 자기의 직위 앞에 서있으면, 君主가 召하여 君命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相은 君命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相火는 君火를 받기 전에는 靜이지만 君火를 받으면 動이 일어나게 된다. 즉 相火의 體는 靜이지만 用은 動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上下周紀 중 君火와 相火를 설명한 원문은 動的인 君火가 召하면 靜的인 相火는 君火에 의해 動이 생겨 上下相召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相 자체는 火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相火라고 한 이유는, 君火와의 관계가 마치 뿌리와 枝葉의 관계로서 동적인 君火의 召에 의해 相에도 필연적으로 火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相火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周易』에서는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卦로는 君火는 離, 相火는 坎에 해당되는데, 離의 性情인 外明內暗이 火이며, 坎의 性情인 內明外暗이 水이므로, 離의 一陰을 水라고 할 수 없듯이, 坎의 一陽을 火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坎의 一陽에 근거하여 相火 자체에 火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內經』과 『周易』에서는, 君火로 상징되는 日과 心은 모두 明과 火熱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君火는 虛名뿐이라는 說과 君火는 明之火로만 한정된 說은 『內經』과 『周易』의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字形적인 측면에서 王冰은 그의 註에서 原文을 “君火以名, 相火以位”라고 하였는데, 現행본에 “君火以明”으로 되어 있는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잘못 보고 註하기에는 字形과 뜻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王冰은 당시 上下周紀의 원문을 “君火以名, 相火以位”로 보고 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王冰 당시의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본다면 上下周紀의 내용상 전후 문장과 연관성이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上下周紀를 설명한 문장은 上下相召를 전제로 一周紀를 설명한 문장이며, 君火와 相火는 上下의 관계이므로 君火와 相火를 相召의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名’字와 ‘召’字는 필기체로 비교했을 때 字形은 거의 흡사하고, 王冰 당시 所藏 舊本인 運氣七篇 字形의 선명도를 감안한다면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 중 君火를 설명한 문자 중 ‘名’을 ‘召’로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 「天元紀大論」의 上下周紀 중 君火와 相火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과 字形적인 측면의 고찰을 종합하면, 現행본의 원문인 “君火以明, 相火以位”는

“君火以召, 相火以位”로 校正되어야 하고, 원문이 이렇게 교정되면 君火가 생명활동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면 원문을 “君火以名”이나 “君火以明”이라고 보고 相火를 생명활동의 주체라고 한 滋陰論과 補陽論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 IV. 結論

新校正本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天元紀大論」중 上下周紀를 전후 문장의 문맥과 諸家の 견해를 참고하여 石谷 李先生이 校訂한 부분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現행본 원문인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대하여 唐 王冰에서부터 金元代까지는 원문이 “君火以名, 相火以位”로 되어 있던 것이 明代를 지나면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上下周紀를 설명한 문단에서 君火와 相火를 인용한 것에 대하여  
본 문단에서 君火와 相火를 인용한 것은, 앞 문단의 내용인 動的인 天이 靜的인 地를 召하는 것이 마치 君이 相을 召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上下의 相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君火以明’을 ‘君火以召’로 校正한 것에 대하여 王冰이 당시 원문을 “君火以名”으로 보고 註하였는데, ‘名’字와 ‘明’字의 字形 및 뜻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문을 “君火以明”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내용적인 관점에서 본 문단은 上下相召를 君火와 相火를 인용하여 설명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자형적인 관점에서 ‘名’字와 ‘召’字의 字形과 획수를 비교했을 때, ‘召’字와 ‘名’字의 字形이 유사하고, 王冰의 所藏 舊本의 字形 선명도를 감안한다면, ‘君火以名’을 ‘君火以召’로 校訂한 石谷 李先生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君火以明’을 ‘君火以召’로 校訂하여 본문단의 전후 문장을 연관시켜 보면, “君火가 召하면 位하고 있는 相火가 이에 응하여 “五六相合”하므로, 天六地五數를 설명한 앞 문장은 문맥상 上下相召이전 상

대를 말하는 것이 된다. 上下相召以前の 天數는 五, 地數는 六이므로 “帝曰, 上下周紀, 其有數乎? 鬼臾區曰, 天以五爲制, 地以六爲節. 周天氣者五歲爲一備, 終地紀者 六基爲一周. 君火以召, 相火以位, 五六相合, 而七百二十氣爲一紀, 凡三十歲千四百四十氣, 凡六十歲而爲一周, 不及太過斯皆見矣.”라고 校正한 石谷 李先生의 直觀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논문>

1. 김중환.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5. pp.18-46.
2. 김중환.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57-63.
3. 김창진.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단행본>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7, 49, 234.
2. 李圭峻編著. 素問大要. 서울. 大星醫學社. 1999. p.195. pp.2-3.
3.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78.
4. 黃元御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78.
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pp.204-205.
6. 朱震亨. 格致餘論. 北京. 中華書局. 1985. p.34.
7. 李杲. 脾胃論.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5. p.32.
8.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624.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4, 237.